

2025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성명	
전형	
수험번호	

표지를 제외한 페이지 수 : 7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도덕적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종국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찾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실현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갈등도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쉽게 조화되지도 않는다.

우리는 앞에서 이 두 입장을 서로 조화시키려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개인적 양심의 도덕적 통찰과 성취는 사회 생활에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또한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가할 수 있다. 정의 그 자체만으로는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 따라서 정의는 보다 높은 어떤 것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중략)

내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도덕적인 행위는 이타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 외적인 관찰자는 이기주의에서 선을 찾을지 모른다. 이런 사람은 인간 본성의 구조에 대해 이기주의가 보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회에 대해서도 이기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행위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이타성이 도덕의 최고 기준이어야 함에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행위의 주체만이, 자신이 사회적으로 승인받은 행위가 이기심에 의해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는 이타심보다는 정의를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는다. 사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균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만일 이런 평등과 정의가 이기심의 상호 투쟁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웃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억제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회는 이기심에 대한 제재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

(나)

자연은 우리 인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모두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로 태어나 이 땅 위에서 짧은 시간을 살다가 죽어 그 육체로 땅을 비옥하게 할 것이요. 당신들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서로를 도우시오. 당신들은 무지하므로 서로를 가르치고 용인하시오. 만약 당신들 모두가 같은 의견이고 단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이라면 당신들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당신들 각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이요.

나는 당신들 인간에게 땅을 경작할 팔을, 그리고 자신을 인도해 줄 한 줌의 이성을 주었소. 나는 당신들 각자의 가슴에 서로를 도와 삶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동정심의 싹을 심어 주었소. 이 싹을 꺾거나 씨히지 마시오. 이 동정심의 싹이야말로 신이 내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오. 그리고 당신네의 가련할 수밖에 없는 당파적 논쟁의 격양된 고통으로 자연의 목소리를 지우지 마시오.

당신네 인간들이 걸핏하면 벌이는 잔인한 전쟁, 과오와 우연과 불행이 펼쳐지는 영원한 무대인 그 전쟁 한복판에서도 오직 나 자연만이 당신들을, 당신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당신들 서로 간의 필요로 결합하게 할 수 있소. 오로지 나 자연만이 국가귀족층과 사법부 사이, 세속 권력 집단과 성직자 사이,



도시민과 농민 사이의 끊임없는 분열로 빚어지는 참담한 재앙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소.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권리를 끝없이 요구하고 있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마음 내키지는 않겠지만, 가슴에 호소하는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오.

(다)

금지(矜持)는 ‘메갈로프쉬키아’(megalopsychia, 정신이 큼)란 그 명칭으로 보더라도, 큰 것에 관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종류의 큰 것에 관계하는가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알아볼 문제이다. 금지있는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큰 일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또 사실 그러한 사람이다. 자기의 가치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자기의 덕에 의거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요, 이성이 없는 사람도 아니다. (중략)

그리하여, 만일 그가 큰 일에 그리고 특히 가장 큰 일에 합당하고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는 특별히 한 가지 일에 관심을 둘 것이다. 자기가 무엇에 합당하다든가 얼마 만한 가치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외적인 선과의 관계에서 말해지는 것이다. 이런 외적인 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은 신들에게 우리가 돌리는 것,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 가장 고귀한 행위에 주어지는 상이라 할 수 있다. 명예가 바로 이런 것이다. 즉 명예야말로 외적인 선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그러므로 명예와 불명예는 금지있는 사람이 당연히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다. 그리고 금지 있는 사람들이 명예에 마음을 쓰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주로 명예에 관해서 자기가 합당하다거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지있는 사람이란, 가장 큰 가치를 지닌 사람인 까닭에, 또한 반드시 최고도로 선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보다 더 선한 사람은 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며, 가장 선한 사람은 가장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금지있는 사람은 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모든 덕에 있어서의 위대성이 금지있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다. 또 자기의 무기를 내버리고 위험에서 도망치거나 혹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는 일은 금지있는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명예를 가장 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명예롭지 않은 일을 하겠는가?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선하지 않고서 금지있는 사람”이란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임을 알 수 있다. 또 나쁜 사람이 명예를 얻을 가치가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명예란 덕에 대한 보상이요, 명예를 얻는 것은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고보니, 금지란 온갖 덕이 차지하는 일종의 면류관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금지가 미덕들을 더욱 위대하게 하며, 또 미덕 없이는 금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금지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성격의 고귀함과 선함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

가르침을 받지 못한 짐승들은 모두 제 좋은 일에만 빠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뿐, 제 좋은 일이 남을 좋게 하는지 나쁘게 하는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짐승들은 뭇 알려고도 뭇 유난스레 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자연에서 떼 지어 사이좋게 잘 살아간다. 짐승들은 정부가 나서지 않고서도 무리 지어 오래오래 잘 지내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사람 천성이 좋은지 나쁜지는 따지지 않기로 하자. 그러나 사람 천성이 그렇기 때문에, 짐승 가운데 사람만이 사회를 이루고 산다. 유난히 이기적이고 고집 세고 약삭빠른 짐승이기에 사람은 아무리 위에서 억누르려고 해도 힘으로만 한다면 다스릴 수도 없고 제대로 고칠 수도 없다.

따라서 법을 만든 사람들과 그 밖에 슬기로운 사람들이 사회를 일으키면서 이제껏 가장 힘써온 것



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욕구에 빠지는 것보다 욕구를 이겨내는 것이 낫고, 저만 생각하는 것보다 모두를 걱정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언제나 아주 어려운 일이었기에, 어느 시대에도 도덕군자와 철학자들은 이처럼 쓸모 있는 주장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있는 솜씨를 다 부렸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었든 안 믿었든,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제 좋은 일에 앞서 남 좋은 일을 하게 만들려면, 힘을 휘둘러 얻는 만큼을 달 리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주어야 한다.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을 떠맡아온 사람들이 이를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람 일 하나하나에 모두가 좋아할 만큼 진짜 상을 다 내릴 수가 없었기에, 이들은 금욕 하는 수고를 보상해주되,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부담이 없으면서도 받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쏙 드는 허깨비를 한 가지 꾸며내기에 이르렀다. (중략) 도덕이란 사람들을 다루기 쉽게 바꾸어 쓸모 있게 만들고자 솜씨 좋은 정치인들이 꺼내 들면서 비롯된 것이며, 야심가에게는 더 큰 이득이 돌아가 도록,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쉽고 확실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꾸며낸 것이다.

(마)

(A)돈 끼호떼가 소년을 알아보고는 손을 잡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건 세상에 방랑기사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상에 버르장머리 없고 나쁜 사람이 많으니 기사들은 폭력을 막고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전에 내가 어느 숲을 지나다가 고통에 시달리는, 대단히 아파하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지요. 의리에 사는 내가 그대로 있을 수 없어 비통해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보았더니 지금 앞에 있는 이 소년이 참나무에 묶여 신음하고 있더군요. 참나무에 묶여 옷통은 다 벗겨진 채였고, 촌사람 하나가 말채찍으로 사정없이 이 아이를 두들겨 패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 사람이 (B)주인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나는 무슨 연유로 그렇게 두들겨 패는지 물었지요. 그 무정한 친구의 대답이 자기 종이니까 때린다고 하면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몰라서라기보다는 도둑질할 생각이 있어 저지른 죄라고 그러더군요. 그 말에 이 아이가 그러더군요. ‘나리, 제가 월급을 달라니까 주인이 저를 때리는 거예요.’ 주인은 뭐라고 지껄이면서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그 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용납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난 아이를 풀어주라고 했고, 아이를 데려가기는 하되 품삯을 1레알쯤 더 없어서 후하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요. 이 말이 다 사실 그대로지, 안드레스야?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명령을 하는지 너도 보았지? 그리고 네 주인이 얼마나 겸손하게 내가 시킨 그대로, 알려준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걸 보았지? 말해봐, 아무 걱정 말고 말하려무나. 이분들께 그때 일을 말씀드려야 길거리 방랑기사들이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이롭고 훌륭한지 알 것 아니냐.”

“나리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정말 사실 그대로입니다.” 소년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일 이후의 결과는 나리께서 상상하신 것과는 완전히 거꾸로 벌어졌습죠.”

“어떻게 거꾸로 벌어졌다는 말인가” 돈 끼호떼가 되물었다. “그뒤 그 촌놈이 돈을 안 주던가?”

“돈을 안 준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소년이 대답했다. “나리께서 숲을 떠나시고 둘만 남자 저를 같은 참나무에 또 매달고 다시 두들겨 패는데,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저는 죽사발이 되었습죠. 저를 때릴 때마다 빈정대는 우아한 말투로 나리를 조롱하는데, 정말 그토록 아프지만 앓았다면 저도 그 말에 웃었을 거구만요. 결국 악질 촌영감이 그렇게 저를 두들겨 패는 바람에, 그때 입은 상처로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구만요. 이 모든 게 나리의 죄입니다요. 나리께서 가던 길이나 가시고, 부르는 데가 아니면 안 가시고, 남의 일에 끼어들지나 앓았다면 우리 주인도 저를 한 열스무 대 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저를 풀어준 뒤 제게 빚진 걸 갚아주었을 거구만요. 그런데 나리께서 그렇게 지각없이 그 사람 체면을 깎고 그렇게 욕을 하시니까 핫김에 발끈 달아올라 나리께 복수할 수는 없으니 단



2025학년도 인문계열 논술고사

인문계열

둘이 남은 틈을 타서 저에게 그냥 온갖 먹구름을 다 뒤집어씌운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제구실을 하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중략)

안드레스는 빵과 치즈를 집어들고 아무도 더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는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발길을 옮겨 떠나면서 돈 끼호떼에게 한마디 했다.

“제발요, 방랑기사 나리, 다시 어디서 저를 보거든, 누가 저를 짓밟고 있는 걸 보셔도 도와주거나 구해주려 하지 마세요. 제 불행은 제가 감당할 테니 내버려두세요. 그래도 나리께서 도와준 뒤 당하는 수모보다는 많지도 크지도 않을 겁니다. 나리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모든 방랑기사를 저주하고 하느님까지 저주합니다요.”

[문제 1-1]

제시문 (가)~(라)를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유사성에 따라 둘로 분류하고, 각 관점별로 내용을 요약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내외로 할 것.(25점)

[문제 1-2]

위의 [문제 1-1]에서 분류한 관점 가운데 하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마)의 (A)와 (B)의 행위와 의도에 대해 비교하여 평가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내외로 할 것.(25점)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각 나라가 자국에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고 무역할 경우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증가한다. 무역을 통해 직접적인 이득 이외에도 다른 측면에서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무역을 하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소비할 기회가 생긴다. 둘째, 무역이 확대되면 국내의 기업들은 많은 외국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및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셋째, 무역이 이루어지면 기업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전 세계를 상대로 대량 생산할 수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 넷째, 무역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전파되기도 한다.

각국 정부는 무역을 규제하는 보호 무역을 시행하기도 한다. 보호 무역 정책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으로부터 수입 상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이것은 국내 상품의 공급량 감소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유치산업의 경우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그 산업의 무역을 규제하거나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정부가 관련 산업 또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외국이 불공정 거래를 할 때 이에 대응하고자 보호 무역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넷째,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산업은 국가 내에서 보호하여 육성할 수 있다.

(나)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군사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경제 영역까지 확장시켰다. 특히 한국의 상품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9.3%에서 2021년 13.4%까지 증가하며 미국은 한국의 2대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24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한·미 FTA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은 ①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 ② 윈윈(Win-Win) 투자효과 ③ 공급망 협력 등을 기반으로 확대되고 심화됐다. 한때 미국은 한·미 FTA가 무역적자를 심화시켰다며 문제 삼기도 했으나, 양국 간 교역은 기존의 상호보완적인 구조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지적한 무역적자는 상품무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비교우위를 가진 서비스무역에서 미국은 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상품 분야만 보더라도 한국은 공산품에, 미국은 에너지자원 등 광물과 농산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대표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석유제품은 각각 제조장비와 원료(원유)를 미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1위 국가이자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투자처다. FTA 체결 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양국 간 투자는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한국의 대미 투자는 미국 내 생산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 기업에게는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됐다. 한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 FTA 추진 당시 미국에 시장을 뺏기고 정부의 재량권이 잠식당할 것이라 우려가 있었으나, 투자자 보호와 지적재산권 강화로 늘어난 외국인 투자는 K-콘텐츠 등의 국내 산업의 잠재력 폭발과 해외시장 도약이라는 또 다른 상호 혜택의 발판 역할을 했다.

(다)

최근 한국의 대미 수출과 대미 무역 흑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1,157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는 444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이에 따라 미국이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가한 품목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통상 압박을 할 수 있다. 최근 3년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는 연평균 27.5% 증가했다. 2019년 이후 승용차, 컴퓨터 부분품 및 저장매체, 냉장고 등의 제품에서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018년 집권 당시 중국에 막대한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을 본격화했고, 지난 선거 유세 과정에서 더 강력한 관세 전쟁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동맹국을 상대로도 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하며 무역 수지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과 반도체법(CHIPS Act)이 현지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축소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기 때문에, 이 법을 근거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유세 기간 중 ‘관세 만능주의자’로 보일 만큼 관세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왔다.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관세로 인해 제조업이 미국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60% 관세를 매기고, 다른 수입품에는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공약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가 만약 10%의 보편 관세를 실행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52~304억 달러 감소하고, 다른 국가들의 미국 수출 감소로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24~0.67%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10센트도 줄 필요가 없다. 관세를 높게 매기면 해외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올 초 미국에 66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9조 원의 보조금을 미 정부로부터 받는 내용으로 바이든 정부와 협상을 마친 바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기업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고 싶어 하는 트럼프가 보조금 축소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예방을 위해 제정한 법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에 세액 공제,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라)

11월 6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다시 한 번 ‘트럼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여러 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의 통상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수입 관세를 중요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하에서도 ‘상호주의’를 외치던 미국의 무역당국은 미국만큼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대폭 높여 더 이상 미국에 불리하지 않은 국제통상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관세 카드를 활용하여 수입 장벽을 높여 외국 기업들이 미국을 대상으로 상품을 팔고자 하는 경우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구축하여 상품을 팔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추구하고 있다.



2025학년도 인문계열 논술고사

인문계열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는 미국의 현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약속하였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환영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재무부 규정을 무효화하거나 미 의회에 세액공제 폐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한 IRA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건으로 '미국산 제품 사용 우대(Buy America)'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 2-1]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와 (다)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내외로 할 것.(25점)

[문제 2-2]

제시문 (다)와 (라)를 참고하여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이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내외로 할 것.(25점)

2025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채점기준





[문제 1]

[문제 1-1] 제시문 (가)~(라)를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유사성에 따라 둘로 분류하고, 각 관점별로 내용을 요약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내외로 할 것.(25점)

[문제 1-2] 위의 [문제 1-1]에서 분류한 관점 가운데 하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마)의 (A)와 (B)의 행위와 의도에 대해 비교하여 평가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내외로 할 것.(25점)

1. 채점 시 유의 사항

- ① 채점 항목은 크게 글의 내용면(40점)과 표현면(10점)으로 나뉨.
- ② [문제 1-1]의 출제의도는 내용의 사실적 파악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임.
 - 인간 본성(성선설, 성악설)이나 사회계약론을 펼치는 것은 출제 의도를 벗어난 답안임.
- ③ [문제 1-2]의 출제의도는 제시문의 개념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임.
 - A와 B에 대해 단순히 인성이나 선악을 평가하는 것은 출제 의도를 벗어난 답안임.

2. 예시 답안

[문제 1-1]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가)와 (라) 그리고 (나)와 (다)로 분류할 수 있다. (가)와 (라)는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이러한 이기심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다. (가)는 개인적 양심의 도덕성은 사회 생활에서 중요하며, 정의와 이타성의 조화를 위해서는 이기심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본다. (라)는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사는데, 힘만으로 다스릴 수 없어서 이기적인 인간에게 금욕의 대가를 주기 위해 도덕을 만들었다고 한다. (나)와 (다)는 인간의 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인간은 서로 돕고 용서하여야 하며, 자연에 의해 주어진 동정심을 발휘하여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한다. (다)에서 금지를 갖는 것은 선한 인간의 품성이고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성격의 고귀함과 선함이 있어야 금지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힘든 일이다.(454자)

[문제 1-2]

1. (가)와 (라)의 관점을 활용한 경우

(가)에 따르면 A는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인 정의와 개인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인 이타성을 추구한 것이다. A는 체벌을 받고 있는 소년을 구출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였고, 월급을 주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는 주인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려 하였다. 그러나 B의 양심만 믿고 이기심에 대해 제대로 제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한 의도와 다르게 소년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그의 비판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B는 소년에게 정당한 임금 지불을 하지 않고 원한으로 매질을 하였고, A와의 약속도 어기고 소년에게 보복을 한다. B는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정의와



이타성이 결여된 이기적인 욕구만 내세운 것이다. 그는 (라)에서 금욕의 보상이라고 하는 도덕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의 이기심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417자)

2. (나)와 (다)의 관점을 활용한 경우

A는 (나)에서 말하고 있는 동정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년을 구출하였다. 그러나 B는 소년에게 동정심을 베풀지도 않고 잔인한 체벌을 하였다. 이것은 자연이 부여한 동정심의 싹을 꺾는 잘못된 행동이다. B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소년은 더 큰 보복을 당했기 때문에, A의 선한 의도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다)에 의하면 A는 금지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기사로서 폭력을 막고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큰 가치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자 했고 명예를 추구하였다. 소년에게 불평과 비난을 당하였지만 그는 고귀함과 선함을 가진 금지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B는 폭력을 쓰고 약속을 깨뜨림으로써 (다)의 금지에 합당하지 않고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 금지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A의 금지와 선의가 현실에서 무시되거나 실현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451자)

3. 세부 지침

㉠ 내용면 -----문제 1-1 20점, 문제 1-2 20점

[1-1]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류와 요약에 적절히 하는지를 평가-----20점

- ① 제시문을 적절히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였는가?(10점)
- ② 제시문 (가)와 (라)의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고 요약하였는가?(5점)
 -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도덕성(이타성)의 조화, 이기심, 사회적 제재, 도덕, 억제
- ③ 제시문 (나)와 (다)의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고 요약하였는가?(5점)
 - 자연(천성), 동정심(관용), 금지, 선, 미덕

[1-2] 이해한 내용을 활용하여 주어진 제시문을 적절히 비교하고 분석하는지를 평가-----20점

- ① 제시문 (가)와 (라), 또는 (나)와 (다)에 나타난 관점을 적절히 활용하였는가?(10점)
- ② 제시문 (마)에 나타난 인물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였는가?(10점)
 - A: 사회적 정의와 이타심의 행동. 명예와 금지를 추구하는 인간의 선한 의도. 이기심을 이해하지 못함. 현실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여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옴.
 - B: 이기적 욕구. 정의롭지 못한 행동. 금지와 명예를 모름.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필요

㉡ 표현면 -----문제 1-1, 1-2, 각 5점(상: 5, 중: 3, 하: 0)

- ① 어휘력: 적절한 어휘 사용
- ② 문장력: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 문장 구사



2025학년도 인문계열 채점기준

인문계열

※ 감점 사항

㉠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문제 2]

[문제 2-1]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와 (다)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내외로 할 것.(25점)

[문제 2-2] 제시문 (다)와 (라)를 참고하여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이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내외로 할 것.(25점)

1. 채점 시 유의 사항

- ① 채점 항목은 크게 글의 내용면(40점)과 표현면(10점)으로 나뉜다.
- ② 감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감점함

2. 예시 답안

[문제 2-1]

자유 무역은 소비자가 전 세계로부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제시문 (나)는 FTA 체결 이후 한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공산품, 미국은 광물과 농산물을 각각 수출하여 양국의 소비자와 기업이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 기업은 미국에 반도체 및 배터리에 투자하여 생산 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즉 FTA는 양국에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보호주의는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제시문 (다)는 FTA 체결 이후 한국의 승용차, 컴퓨터 부품품 및 저장매체, 냉장고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증가하였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FTA는 한국에 유리하고 미국에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446자)

[문제 2-2]

제시문 (다)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출한 제품에는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였다. 미국이 10%의 보편관세를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52-304억 달러, 다른 국가들의 미국 수출 감소로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67-0.2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시문 (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법이 폐기되면 삼성전자가 66조 원 투자할 때 약속받은 9조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무효화되거나 폐지되면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미국산 제품 사용 우대를 통해 한국산 제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443자)



3. 세부 지침

㉠ 내용면 ----- 문제 1-1 20점, 문제 1-2 20점

[2-1]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자유무역과 보호주의의 차이를 이해하고 제시문 (나)와 (다)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례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평가 ----- 20점

- ①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소비할 기회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5점)
- ② 무역이 이루어지면 기업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전 세계를 상대로 대량 생산할 수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지적(5점)
- ③ 국내 상품의 공급량 감소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5점)
- ④ FTA 체결 이후 한국의 승용차, 컴퓨터 부품품 및 저장매체, 냉장고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5점)

[2-2] 제시문 (다)와 (라)에서 논의된 트럼프 행정부 2기 보호주의 정책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 20점

- ① 트럼프 행정부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52~304억 달러, 다른 국가들의 미국 수출 감소로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4~0.67% 각각 감소한다는 사실을 지적(5점)
- ②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지적(5점)
- ③ 반도체법이 폐기되면 삼성전자가 66조 원 투자할 때 약속받은 9조 원의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예측을 지적(5점)
- ④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무효화되거나 폐지되면 전기차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며 미국산 제품 사용 우대를 통해 한국산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다는 평가를 지적(5점)

㉡ 표현면 -----문제 1-1, 1-2, 각 5점(상: 5, 중: 3, 하: 0)

- ① 어휘력: 적절한 어휘 사용
- ② 문장력: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 문장 구사

※ 감점 사항

㉠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감점